

AI·드론으로 농정 혁신…남원시, 디지털 농업행정 시동

‘농부’ 플랫폼 구축 완료…영농관리·농지조사 행정 70% 단축
농업 넘어 일반 행정까지 확산…데이터 기반 행정 전환 본격화

남원시가 인공지능(AI)과 드론의 접목을 통해 농업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남원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벨리 지 보급 및 확산사업’의 일환인 ‘스마트 영농관리 서비스 농부’ 구축사업 완료보고회를 열어 스마트 영농 플랫폼 ‘농부’ 구축의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농부’는 드론으로 수집한 고해상도 영상과 AI 분석기술을 바탕으로 조사료 생산관리, 비닐하우스 현황조사,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디

지탈화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농작물 생육 상태와 농지 이용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어 농업의 과학적 관리와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3월부터 추진된 사업에는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총 12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특히 조사료 생산관리 분야의 기술 적용이 두드러졌고 드론과 AI 기술을 통해 행정업무 처리 시간을 기존 대비 70%나 줄이는 성과를 냈다. 농가 보조금 정산 정확도 역시 높아져 1억7000

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있었다. 보고회에는 사업 추진 결과와 농부 플랫폼 시연, 질의응답 및 실무자 교육이 차례대로 진행됐고 농부가 미친 행정업무에 대한 영향과 앞으로의 활용 가능성에 주목하며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시는 이번 ‘농부’ 플랫폼 구축을 기반으로 향후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일반 행정 분야에도 드론과 AI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농업뿐만 아니라 행정 전반에 드론과 AI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초적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을 통해 시민에게 더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 가로수에 보호 ‘방풍막’ 설치

19개소 완료…제설작업 유입 차단

정읍시가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과정에서 염화칼슘 등으로부터 가로수(조경수)를 보호하기 위해 주요 화단 19개소(면적 약 3만3000㎡)에 방풍막 설치를 완료했다. <사진> 이번 조치는 제설제 살포 시 섞여 있는 염화칼슘 등의 화학 성분이 도로변 화단에 유입돼 나무가 고사하거나 생육이 저하되는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는 도로와 인접해 있어 제설제의 직접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구간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해당 구역에 촘촘한 방풍막을 설치함으로써 제설제가 화단 내부로 튀어 들어가는 것을 막아 수목의 안전한 생육 환경 확보에 주력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설치 과정에서 세심한 노력이 돋보였다. 제설제가 날리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방풍막의 높이와 설치 간격을 정밀하게 조정했다. 또 단순히 기능적인 측면뿐 아니라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안전성과 미관을 동시에 챙겼다. 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겨울철 수목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봄철에 푸르고 쾌적한 녹지 경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윤희 정읍시 산림녹지과장은 “사후 처방보다는 사전 예방 중심의 적극적인 관리 행정을 통해 녹지 훼손을 줄이고,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오명제 정읍시의원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상’

의정 발전·주민 화합 공로

정읍시의회는 오명제 의원이 지난 29일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회장의회의로부터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 화합에 기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지방의회 의원에게 주는 상이다. 오명제 의원은 경제산업위원장으로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산불 예방 및 대응 체계를 위한 조례를 마련하고 소규모 건축물 해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시민 불편 해소와 행정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했다. 오명제 의원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의정 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에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한 정읍시의회 오명제(오른쪽) 의원이 박일(왼쪽) 정읍시의회의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정읍시의회 제공>

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지역출신 방송인 모건우 홍보대사 위촉

춘향제·월광포차 등 진행

남원시가 지역 출신 방송인인 모건우씨를 시 홍보대사에 재위촉했다. 남원시 제3호 홍보대사인 모건우씨는 시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춘향제’ 등 프로그램 진행과 ‘2025년 월광포차 시즌2’ 사회자로 활동하는 등 시민과 관광객을 잇는 소통 창구역할을 수행했다. 시는 전통문화 자산인 춘향제를 비롯해 관광, 청년, 미래산업 정책을 다양한 매체와 행사에서 남원을 소개하는 데 모건우 홍보대사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모건우 홍보대사는 “고향 남원을 알리는 역할을 다시 맡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남원이 문화와 미래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성장하는



모건우(왼쪽) 홍보대사가 최경식 시장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남원시 제공>

모습을 꾸준히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사랑상품권, 1210억원 발행…최대 12% 할인

남원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2026년 ‘남원사랑상품권’을 121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이에 따라 남원사랑상품권은 10% 할인인과 카드·모바일형상품권 사용 시 2% 후개시백을 결합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매 시 즉시 10%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카드·모바일형 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결제금액의 2%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지류형 상품권은 후개시백 지급 대상에서 제

외된다. 시는 기존의 선할인 방식에서 벗어나 선할인과 후개시백까지 할인구조를 개편함으로써 실질적인 할인 체감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상품권의 실제 사용을 유도해 실사용자 중심의 소비촉진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다양한 운영 방식을 통해 시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임진왜란 의병 혼 서린 ‘고창 남당회맹지’ 전북 기념물 지정 예고

전북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통과

임진왜란 당시 의병들이 삼혈동맹을 맺고 구국 활동을 펼쳤던 ‘고창 남당회맹지(高敞 南塘會盟址)’가 전북도의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전북 기념물로 지정 예고됐다. 이번 지정 예고는 고창 남당회맹지가 지난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임진왜란 시기 호남 의병의 활동과 그 정신을 재조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 남당회맹지는 1592년(조선 선조 25년) 임진왜란 발발 시 흥덕 일대의 선비와 양민 약 300명이 구국의 일념으로 의병을 일으키고, 피로 동맹을 맺었던 역사적인 장소다. 흥덕 남당의회 부대는 동맹 이후 진주성 전투에 참여하고 순천 석보장~남원 방어 활동 등에 참여했다. 정유재란 때는 흥덕 장동원, 부안 우반동 일대에서 최후까지 애제에 맞서 싸우며 호남 지역의 충절을 온몸으로 보여준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 유적지는 그동안 맹단(盟壇), 술무덤(酒榘), 또는 말무덤이라 불리며 전승돼 왔고, 2004년부터 고창군 향토문화유산 ‘남당회맹단’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다.



‘고창 남당회맹지(高敞 南塘會盟址)’가 전북도의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전북 기념물로 지정 예고됐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 관계자는 “남당회맹지는 임진왜란 당시 국난 극복을 위해 의병을 일으켜 굳은 맹세를 했던 상징적인 장소”라며 “전북 의병사 및 임진왜란사

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는 지속적인 선양사업과 함께 보존·활용 방안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서해안권 중심도시 도약…고창군, 정부 예산 사업 2차 발굴

총 104건 4877억원

고창군이 오는 2027년과 2028년 국가 예산 사업으로 총 104건, 4877억원 규모를 발굴했다. 이 중 2027년 사업은 73건, 3195억 원이다. 고창군은 최근 심덕섭 군수 주재로 ‘서해안권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국가 예산 2차 발굴 보고회를 열었다. 이 보고회에서는 신규 발굴한 국가예산사업에 대한 타당성, 효과성, 시급성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주요 발굴 사업은 ▲노동저수지 생태관광지 조성 ▲고창갯벌 스토리 포인트 조성 ▲교육 발전 특구 지정 ▲심원면 소재지 일반농산어촌 개발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 ▲고창 드론인증센터 건립 등이다. 군은 정부 부처 업무보고 등을 면밀히 분석해 내년 초 공모사업 ‘제로베이스’ 검토 보고회도 열 예정이다. 특히 군은 정부의 ‘5극3축’ 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예산 편성권을 쥔 전북도에 대응받을 편

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또 정부 부처의 예산작업이 집중되는 3~5월을 피해 내년 1월부터 부처를 방문해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 비전 실현을 위해서인 안정적인 국가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예산 확보를 넘어 군민이 체감하고 지역 미래를 책임질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국가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 ‘농촌진흥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

13억 투입…‘전문 농업인’ 양성

정읍시가 13억원 규모의 ‘2026년 농촌진흥 시범사업’ 참여자를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선진 영농기술의 보급과 경쟁력 있는 전문 농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또 시장 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가공 기술 지원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는 건실한 농업 경영인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농촌진흥청에서 새롭게 개발한 기술의 보급과 농업 인력 육성에 중점을 뒀으며, 총 21개 사업에 13억 4600만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구체적인 분야를 살펴보면 ▲청년 농업인 육성 분야 5개 사업 ▲교육 및 농업인 단체 분야 7개 사업 ▲농산물 가공 분야 5개 사업 ▲농촌 체험 및 안전 분야 4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지원 대상은 사업별 기준에 적합한 정읍 지역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모집 기한은 일반 분야의 경우 26일까지이며, 청년 농업인 분야는 오는 30일까지로 설정됐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홈페이지)의 새 소식 게시판을 확인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담당 부서의 철저한 현지 실태조사와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이 정읍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농촌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해 지역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아이 발걸음에 숲을 더하다…남원, 안심 통학로 완성

월락초·한빛중에 자녀안심그린숲 조성…통학환경 개선

남원시가 월락초등학교와 한빛중학교 주변 도로에 어린이 통학로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녹색 통학환경을 조성했다.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사업은 학교 주변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에 녹지공간을 확충해 보행자와 차량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숲과 녹지를 통해 어린이의 심리적 안정과 보행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기존 도로변 화단을 확장 설치해 겨울철 제설작업 시 살포되는 염화칼슘으로 인한 수목 피해를 최소화하고, 통학로와 차도를 구분하는 완충녹지 기능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환경의 안전성과 쾌적성이 크게 향상됐다. 수종은 아이들의 눈높이와 이용 특성을 고려해 시아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도

록 블루엔젤, 레드로빈, 셀릭스 등 교목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하부에는 등근시양측백, 무늬실유카, 은사초, 노루오줌 등을 심어 계절별 경관 변화와 함께 자연 친화적인 통학로 숲길을 완성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자녀안심그린숲은 단순한 조경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의 일상 동선에 숲을 더해 안전과 정서를 함께 돌보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녹색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